

The 60th Annual Meeting of The APS Division of Fluid Dynamics 참가기

최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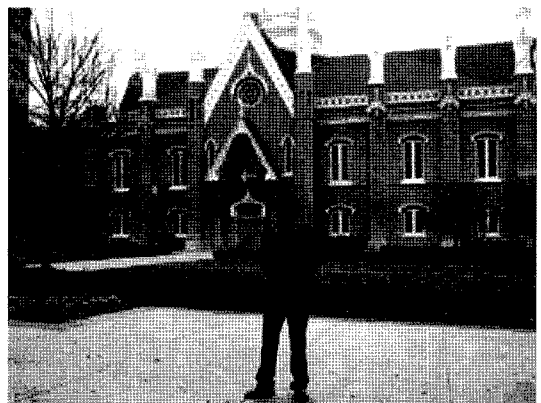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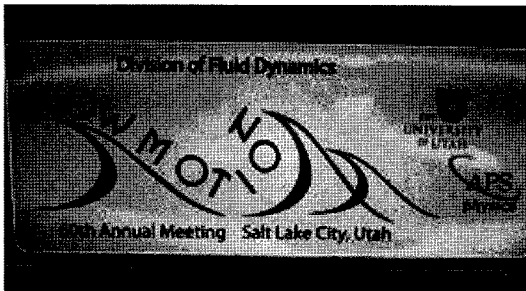
경상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

지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The 60th Annual Meeting of the Division of Fluid Dynamics”에 참가하여 연구내용을 발표 하였다. 이 학회는 American Physical Society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 중 유체역학과 관련된 학회로써 미국 내의 연구자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는 매우 큰 규모의 학회이다. 이번에 발표 된 논문의 수가 약 1,400개로써 그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규모만큼이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지는 학회다 보니 처음 초록을 적을 때만 해도 내가 그 자리에서 발표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내용은 쌓여갔고 이러한 부담감은 조금씩 없어졌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의 연구를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가슴이 설레었다. 학회날짜에 맞춰서 연구내용도 정리하며 영어로 발표하는 처음학회라 영어발표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러나 11월 16일, 공항에서 교수님과 함께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전만해도 내가 많은 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은 잘 상상되지 않았다.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학회가 개최되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하였고 학회장소와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하였다. 학회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Salt Palace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이곳 솔트레이크 시티는 우리나라의 대도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었다. 서울, 부산등의 대도시에서 느껴지는 도시인들의 서두름이나 빡빡함 등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깨끗하고 평온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혼잡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밤에는 더욱 조용한 도시가 되었다.

18일은 학회가 시작되는 날로 일요일 오전부터 학회가 열리는 것이 신기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학회가 보통 9시에 시작하는 것과 비교해 이른 시간인 8시 30분부터 첫 발표가 시작되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4개의 발표시간으로 나누어졌으며, 같은 발표시간대에 약 20개의 발표장에서 동시에 발표가 진행되었다. 동시간대에 여러 개의 발표가 진행되어서 발표 시작 전 관심 있는 발표를 미리 정해놓고 발표를 들었으며 가끔 흥미 있는 발표가 겹쳐서 아쉬웠다. 발표시간은 초청발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분의 발표와 2분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져 도중에 발표시간이 비었다



하더라도 미리 앞당겨 발표하지 않고 시간을 채운 후 다음발표로 이어지게 운영되었다. 이는 동시에 20개의 발표장에서 청중들이 최대한 많은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랜 역사를 갖는 APS학회의 전통과 같다고 들었다. 어떤 초청발표자는 지금까지 학회에 참가하면서 수십 년간 발표를 했는데 드디어 10분이 넘는 발표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었다고 워트 있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 학회에서는 유체관련 분야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연구가 각 발표장에서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나는 회전유동과 유동제어, 마이크로유동, 실험기법등과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들었으며 정확한 발표시간의 엄수에 따라 하루에 약 20개가 넘는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있었지만 학회를 통해 다른 사람이 어떠한 연구를 하는지, 새로운 실험기법의 소개등과 같은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학회 첫날의 저녁은 학회에서 준비한 만찬에 참가하였다. 뷔페가 준비되어 있었고, 맥주와 음료를 같이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만찬 도중 불을 사용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불을 팬을 이용한 회전유동으로 제어하여 그 크기와 모양을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퍼포먼스였다. 아이러니하게 그 퍼포먼스의 주인공은 유체역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하는 연구자가 아닌 전문쇼 공연자였고 그는 실제 유체를 전공으로 하는 많은 연구자들을 놀라게 해주었다.

학회 둘째 날은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내가 이번 에 발표하는 주제는 수직벽 유동에서 전방의 주기적인 흡입과 토출을 이용한 후류 제어에 관한 연구로써 외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보는 가운데 발표를 하

였다. 발표는 큰 실수 없이 끝났지만 그래도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오후에는 유동가시화에 관한 포스터 발표를 보았다. 50개에 가까운 포스터가 전시 되었는데 보는 것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경이로웠다. 평소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동들의 아름다운 가시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연구 중에 수직벽 유동의 가시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와 비교하면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또 더 좋은 가시화 결과를 얻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뻘뻘이 들어찬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학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마지막 날에 회전유동 세션이 가장 늦게 있어 학회의 가장 끝시간까지 발표장소를 지켰다. 그리고 학회 일정이 모두 끝난 오후에는 학회장 옆에 있는 쇼핑몰에 가서 간단한 쇼핑을 하면서 평소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과 가족들 선물을 사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식사로 레스토랑에서 두꺼운 립아이 스테이크를 먹었다. 한국에서는 비싼 가격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스테이크는 과연 “이런 맛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한 잔의 맥주는 학회준비 과정에서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말끔히 추억으로 가져주었다. 아직도 그 때의 스테이크와 맥주를 생각하며 가끔씩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다.

5박 7일 동안의 미국일정은 짧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라 생각된다. 이번 학회를 통해서 연구에 대한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더욱 알차게 활용하고 싶다.

